

호수에 쇼핑카트 ‘둥둥’ 눈살...마트도 ‘골머리’



광주 수완호수공원 한달 평균 10여개 ‘퐁퐁’...시민의식 실종 인근 관리사무소 불구 수개월째 방치...곳곳 쓰레기·낙서도

“호수에 쇼핑카트가 한 달째 떠있어 요. 버리는 사람도 문제고, 관리 책임자도 문제죠.”

시민들의 휴식처인 도심 공원 호수에 쇼핑카트가 한 달째 방치되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 이 쇼핑카트는 호수 외에도 공원, 인근 도로 등에도 버려지며 매일 평균 60여개에 달해 마트는 물론, 광산구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광주 광산구 장덕동 소재 수완호수공원.

비가 내려 수심이 높아진 호수에 인근 대형마트의 빨간색 쇼핑카트가 뒤집어진 채 반쯤 잠겨 있고, 그 주위로는 플라스틱, 비닐, 라면 봉투, 간지 플라스틱 의자 등 생활쓰레기가 떠 있거나 나뒹굴고 있었다.

또한 공원 내 설치된 의자는 검은색 래커(lacquer) 등으로 쓴 낙서로 도배

돼 오염된 상태였고, 호수 주변 산책로 또한 쓰레기와 전동킥보드 등이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이중 빨간색 쇼핑카트는 호수 외에도 공원 내, 인근 도로에까지 ‘나 홀로’ 있어 보행과 차량 통행도 방해하고 있다.

수완동에 거주하는 김영덕(72)씨는 “호수를 바라보면 주변에 앉아서 쉬는 의자가 낙서와 쓰레기로 더럽혀져 올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마트에서 카트를 가지고 나와 여기서 버리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죄다 도무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이처럼 시민의 안락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된 공원이 버려진 쓰레기와 낙서,

카드 등으로 오염되고 손상되고 있지만 인근 관리사무소 등 관할 자치구인 광산구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쇼핑카트의 경우 사유 재산에 속해 인근 대형마트가 직접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쇼핑카트 1개가 약 10만원 정도다. 호수공원과 인근에서 한 달에 약 50-60개를 수거하고 있다”며 “주변에 CCTV가 없어 카트를 버리는 사람을 특정하기 힘들고 고등학교생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해 경찰서로 인계해도 훈방 조치로 끝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영업·판매 시설이다 보니 강압적으로

만 할 수도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카트를 무단 반출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광산구 관계자는 “관리 기준은 따로 없지만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대형마트와 별도로 쇼핑카트 회수도 하고 있다”며 “수완호수공원을 비롯해 풍영정천변길공원 관리를 1명이 담당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낙서로 더럽혀진 의자의 경우 정비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호수 내 쓰레기나 카트가 버려지지 않게 안내 문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고려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주성학·이욱근 기자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갑질’ 논란...“2년간 10명 퇴사”

막말에 업무상 불이익...신고 익명성 지켜지지 않아 2차 가해 우려도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막말과 업무상 불이익을 줬다는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27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의 갑질을 견디지 못해 10명의 직원들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센터 직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으로 전남도청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2차 가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직원들은 지난 2021년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으로 발령받은 A 씨

가 “X 없는 것들”, “개념이 없다” 등의 반말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결재판을 던지거나, 직원의 미숙함을 30분 넘게 큰소리로 질책하며 “나를 무시하냐”, “내가 만만하냐” 등의 막말로 모욕감을 줬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연차와 단축근무 사용 시 눈치를 주고 과중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업무상 불이익을 가하고 업무 외 시간에 A 씨가 마음에 들 때까지 창고 정리를 시키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팀원들은 압박감에 시달려 지난

5월 전남도청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신고자에 대한 인적 사항이 노출돼 직원들은 더 큰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직원은 “A 팀장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며 “직원들 모두 매일 극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원은 “A 팀장 때문에 최근 2년간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퇴사한 상황이라 이제는 더 이상 직원들을 떠나 보내기 싫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현재 갑질 내용 관련 감사에 착수했으며 A 팀장과 직원들을 분리 조치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광주FC, 유흥주점서 법인카드 사용·출장비 과다청구

시장사위, 특정감사 17개 사항 적발

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출장비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7일 광주FC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여 17가지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A 부장이 휴일 또는 유흥주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1천100만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광주FC에 대해 주의 처분을 했다.

A 부장은 이후에도 자택 근처나 근무지 외 지역, 유흥주점에서 결제하는 등 2021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16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77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그는 대표이사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경조화환을 2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활동비 지급 규정이 없음에도 광주FC가 A 부장에게 2019년 1월부터 4년2개월간 매월 100만원씩 총 5천만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한 점도 지적했다.

또 2021-2022년 직원들의 출장 여비를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면서 식비·숙

박비·교통비 등 54건 6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3차례에 걸쳐 직원 8명을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도 밝혀졌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A 부장과 전 사무처장 B씨를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부당하게 쓴 업무추진비와 과다 지급한 출장비를 회수하고 관련자들을 훈계 또는 주의 조치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박선경 기자



‘청소년 보호법’ 안내 캠페인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광주 북구청 아동청소년과 직원들이 관내 중흥동 원룸 밀집지역 한 편의점에서 술·담배 등의 유해환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만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날 밝혔다. /김애리 기자

‘광주 서구의원 2억 상당 금품수수’ 불구속 입건

철거업자 “공사 수수 약속해 수년간 접대” 고소...의원 “사실 무근”

광주 서구의원이 공사 수수를 빌미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반면 해당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고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27일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회 A 의원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고소 사건

이 접수돼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의 모 철거건설업체 대표 B씨는 A 의원이 “공사 수수를 도와주겠다”며 2021-2022년 수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했다고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이날 피해자 조사에서 부산지역으로 함께 간 여행에서 A 의원을 위해 골프용품 700만원, 백화점 명품 800

만원 등 비용을 대신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명절 인삼 선물 세트 900만원 상당, 명품 시계 생일 선물 1천만원 상당, 국회의원·시의원 후원금 800만원 등을 요구해 A 의원에게 줬다고 밝혔다.

B씨는 광주 서구청 육교 철거 공사를 수수하게 해주겠다고 A 의원이 요구해 각종 기부금 등 금품 액수 총액이 2억원에 달하지만, 공사 수수 등 단 한 건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 의원은 “구의원이 무슨 능력이 있어 뇌물을 받겠느냐”며 “사실무근이다”고 전면 부인했다. /오복기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기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부패

CMYK